

사람세상



사진제공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경호



한벗이 ♥ 하는 일



한국휠체어기증본부

빈곤국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유모차 보조기구 기증
미얀마 한벗휠체어센터 운영
쓰지 않는 휠체어, 보조기구 기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전문 주간보호센터
맞춤 보조기구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한벗보조공학센터

보조기구 정보제공
보조기구 무상대여 및 상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한벗동지"

서울시에서 유일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전문 소규모 생활시설
24시간 케어
주말 혹은 단기 체류 가능



한벗 투어

예약제 이동지원
국·내외 장애인 여행 지원
리프트차량 대여(6인승, 15인승)
내한 외국 장애인 수/전동 휠체어 무상 대여



장애인의 투표

표지사진은 투표의 엄숙과 간곡함, 장애인이 「국민」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모든 장애인이 이처럼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의 인권, 사람대우의 참된 모습은,
투표하는 「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지난 2000년 5월 총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면 소송을 낸 휠체어 장애인이 있었다. 그 날 투표권을 가진 성인 중 57%만 투표했는데, 그에게 투표가 왜 그리 중요했을까?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주며 50만원의 벌금만 물리고 숨어버렸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은 투표를 하게 해달라는 호소와 투쟁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는 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얻어진다.



장애인의 투표

장애인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휠체어를 위해 투표소를 1층에 마련해야 하고, 맹인이나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와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왜 이처럼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는가? 투표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근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한 표를 가지기 위해 인류는 5천년의 세월과 투쟁을 바쳐왔다.

투표의 상징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는 순간, 우리는 「국민」이 된다. 힘든 과정을 거쳐 장애인이 기표하는 모습은 우리를, 국민을 존엄하게 한다.



보물이 된 장애인

독일의 '베에텔'은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유명한 장애인 복지도시이다. 1960년대 말, 한 일본인이 찾아와 이곳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물었다. 시청의 자원봉사자가 답했다.

“우리 베에텔의 보물을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그를 어느 장애인시설로 데려가 침대에 누운 한 장애인 앞에 섰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눈짓으로 의사를 표현할 따름이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그 연유를 설명했다.

2차 대전 말, 히틀러는 식량만 축내는 시설의 중증장애인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베에텔에도 친위대가 왔다는 소식에 일단의 시민들이 몰려와 막아섰다. 그 중 한 명이 친위대장 앞에 나서 말했다.

“이 장애인을 죽이려면 우리를 먼저 죽이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총통의 명령이다,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죽는다.”

그래도 시민들은 미동조차하지 않았다. 무서운 일체성이었다. 결국 대치 끝에 친위대가 물러났다. 장애인 한 명 때문에 수십 명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민들은 이 무력한 장애인을 위해 왜 목숨을 내놓으려 했을까?

“인간의 존엄성을 이 장애인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시민들은 전쟁의 참담한 파괴를 보며 생명의 지엄함을 절실하게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 후 이 사람은 모든 시민과 아이들을 깨우치는 스승이자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이 사건의 장애인이 아님)

아기가 처음으로 햇볕에 나온 날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유모차 안의 아기가 즐거워하는 게 보이지요?

그런데 왜 나이 많은 스님이 유모차를 밀고 있을까?

이곳은 고아원입니다. 아기 엄마가 없습니다. 아마 엄마는 아기를 영 데리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10월, 어느 할머니가 이곳 사원학교(보육소)에 핏덩이 를 안고 왔습니다. 아기 엄마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스님은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늘 작은 침대에 누워지내다 한뼉의 유모차를 선물 받았지요.

밝은 햇살 아래 보육원 아이들이 몰려와 들여다봅니다.

아기의 첫 나들이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유모차를 기증해주신 어머니.



〈유모차 기증자 : 승유 맘 장정선 님〉

유모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수거 명단(대수)

강예성 권은숙 김고은 김미소 김서영(2, 성인용 보행보조기 포함) 김소희 김수정 김은희(2) 김주희 김현아 문성아(2) 박은희 박정임(2) 박현정 박혜상(2) 배세영 서희정(2) 양정임(2) 유영자 윤남정 윤은미 이영자(5) 이윤영 이정주 이춘○(2) 이해령(2) 이해정(2) 정성영 정은주 홍윤정
유모차 세탁비에 보태라며 후원해주신 김서영, 김주희, 문성아 님 따뜻한 마음에 절로 힘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 수거비로 받는 5,000원은 미안마로 보내는 컨테이너 비용에 쓰여 집니다.



주간보호실의 중고생 봉사자

봉사와 벌 받기

주간보호실에는 숙명여대 외에 중고생 봉사자들도 찾아온다. 앓던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도 있다. 왜 학교에 가지 않고 낮 시간에 봉사하러 오는 것일까? 이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 어떤 벌을 받아 교육청 Wee센터에서 봉사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이 장애인 봉사를 하면 뉘우치고 바뀌게 된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학교에선 주소만 알려주고 보내 버린다. 그러니 벌 받는 처지가 되어 온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장애인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어린 태가 묻어 있는 앓던 중학생이 두려운 표정으로 주간보호실에 들어와 어리둥절해한다. 그렇지, 전혀 다른 세상이지!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듣고 휠체어 체험도 한다. 숙명여대 언니들의 다독임과 다정한 눈길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며 호기심을 보인다.



사랑 배우기

2~3일이 지나면 호기심은 점차 호감으로 바뀐다. 그러다 장애인에게 밥도 먹여주고 침도 닦아줄 정도로 친밀해진다. 정해진 봉사시간을 채우고 떠날 때는 포옹도 하며 깊은 표정을 짓는다. ‘그래,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약한 사람을 사랑해야 해.’

보내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김정애(오은주 이용자 모) - 호두과자 1박스
송윤옥(주간보호 실습생) - 오예스 3박스, 빼빼로 10박스 등
이기훈(주간보호 이용자) - 불고기피자 2판
푸드뱅크 - 빵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숙명여자대학교 - 나선희, 박가윤, 윤지명, 윤채희, 임시은, 정예림, 한주연
숙명여대 로타랙트 동아리 - 광유신, 김나영, 김수빈, 김윤영, 노규연, 류지호, 민지은,
박민영, 박서영, 서미연, 안현지, 양경하, 오소옥, 유승현, 이승현, 이영경, 이주희, 이지우, 이지현,
임비, 임소연, 정민서, 정지윤, 정현주, 조운선, 홍다원



아이스크림 릴레이



매너 반장 채순옥(조리원) 선생님의 호통

채 선생님이 2층에서 내려오는 태훈, 주용 씨에게 한 마디 하신다.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알아, 화이트 데이잖니? 우리 동지에 여자라곤 나랑 원장님 둘 뿐인데 사탕 하나도 준비 안했니? 여기 남자가 열다섯은 되는데 한 명도 안주네, 너무하네!”
무뚝뚝하고 곰살맞지 못한 남자들에게,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잘 챙겨야 대접 받는거라며 일장 연설이다.



아이스크림 타임

태훈 씨가 슬그머니 문을 나서더니 마트에서 알록달록한 사탕 한 통을 사오며 웃는다. 이를 본 주용 씨는 아이스크림을 사겠다며 나간다. 이리하여 채 선생님 덕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달콤한 사탕과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입에 문다.

“애들아 내가 진짜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냐.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야, 왁자지껄 좋잖아!”

이윽고 한 사람씩 칠판으로 가 자신의 이름 칸에 아이스크림 쓰기 순서를 적기 시작한다. 직원은 물론 봉사자, 실습생까지 모두 합류. 이리하여 점심시간의 즐겁고 왁자한 아이스크림 타임이 생겼다. 벌써 한 달째, 점심시간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세요!

신규 공익근무 시작한 두 분

문석진 군(24)과 안태웅 군(22)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늘 일손이 부족한 동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수(봉사자) 아이스크림, 커피믹스, 김미라(봉사자) 제육볶음료, 김영신(후원회원) 피자, 주방세제 등,
김현자(후원회원) 머릿고기, 케익, 노문우(후원회원) 아이스크림, 박주용(이용자) 아이스크림, 된장 등,
신경기(직원) 풀빵 등, 여일구(후원회원) 닭발, 청국장, 돈가스 등, 원순재(후원회원) 쌀,
윤태훈(이용자) 사탕, 조성윤(후원회원) 커피믹스, 진권모(이용자) 오리, 소고기. 삼겹살, 채순옥(직원) 아이스크림,
김영신(후원회원)님께서는 식구들 생일을 기억하셨다가 매번 맛있는 케익을 보내주십니다.
이달에도 이용자 잔권 씨 생일에 케익과 피자를 보내주셨네요.

두 손 가득
선물꾸러미

저희 어머니 해외여행 좀 시켜주세요

다음은 어느 후원회원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읽고 보니 노인들도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팔순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시어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많이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한 번 가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렇지만 단체관광은 엄두가 안 나고, 제가 혼자 모시고 다녀올 사정도 못 됩니다.

한벗 소식지를 보니 휠체어 장애인을 데리고 만리장성까지 구경시켜주고 있던데,

저희 어머니 같은 노인도 휠체어를 이용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는 7월, 어머니 팔순 기념으로 일본 같은 곳에 여행시켜 드리고 싶은데

한벗에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도

해외여행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편지를 받고 직원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마운 후원회원들에게 은혜 갚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벗은 2010년, 수차례 노인관광을 해봤습니다.

이미 일본과 북경, 제주도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과 숙소, 식당과 관광코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숙련된 보조인력을 1:1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다섯 분과 가족 혹은 보조인 등 10명이 팀을 짜면 비용도 저렴해집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문의해주세요. 02-702-1515. 담당 차진희

오사카 여행 좋았어요

휠체어로 세계로 팀 15명



지난 4월 17일~21일(4박 5일), '휠체어로 세계로 팀' 15명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사카와 교토, 고베 등의 관광명소를 다녀왔습니다. 어땠을까?

만족도 조사결과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온천은 관광객과 이용자가 너무 많아 기대한 만큼은 못 뒀지만, 영화 죠스관, 3D와 4D 관람은 재미있었다고. 그리고 오사카 성, 고베의 행복마을, 도톰보리(변화가) 구경, 잘 다듬어진 공원과 식물원 관람, 지하철 체험은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없는 장애인 호텔(빅아이)과 리프트 버스 이용은 만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비해 편의시설이 크게 앞선 일본 관광에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벗은 앞으로 시행착오와 더 많은 관광정보를 축적하여 멋진 관광을 선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초의 백두산 관광,
10월에 떠나는 후지산과 도쿄 관광에 참여할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차진희 실장, 02-702-1515

네이버 창에서

▼ 한벗투어

를 검색하세요!

자신이 타던 휠체어를 기증해준 장애인



장애인이 타던 휠체어를 기증받을 땐 잔해진다.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옷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터 잠자리에 들 때 비로소 벗는 옷, 얼마나 많은 사연과 애착이 서렸을까? 또 이를 다른 장애인에게 건네주는 마음은 어떨까? ‘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해.’

좋은 휠체어를 기증해준 장정근 님(수동), 권오숙 님(전동/작년 한벗의 북경관광 참여), 뜻을 새겨 전하겠습니다.

한벗 식구가 되신 후원회원들 환영합니다

- ♥ **곽희수, 김미애, 배병찬, 정민영**(이상 한벗동지)
- ♥ **김경희, 김려원**(이상 재단 본부)
- ♥ 미안마 방정환기금 후원자는 별도 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문의 02)393-0661



후원금 증액해주신 분

- ♥ 한벗의 감사 문자를 받고 또 증액해주신 **이종우** 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 ♥ **미안마방정환기금**
알뜰히 모은 동전 저금통을 기부하신 **구자명** 님, 옛벗 **김옥열** 님, **권진동** 운영이사님의 참여에 용기를 북돋습니다(참여회원 명단은 별도 소식지에 게재).

특별후원금

- ♥ **유진메디케어 민병욱 대표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안마로 보내는 유모차 컨테이너 비용 3백만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미안마 엄마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세요.

한벗소식지를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문자 010-2721-0794

카카오톡에 한벗재단 아이디를 개설하였습니다.
한벗재단 검색하셔서 궁금한 점 문의 하세요!



장애인 제주도 자유여행 지원차량

5월 중순부터 제주도에서 운행

리프트 미니버스와 승합차 각 1대

장애인의 제주도 자유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리프트 차량 2대가 5월 중순부터 제주도에서 운행합니다. 승합차 대여료는 1일 8만원, 미니버스는 1일 10만원입니다.

리프트 차량 탑승인원(운전자 제외)

구분	전동휠체어	비장애인 석	계
승합차	2대	2석	4명
미니버스	3대	14석	17명

차량만 대여할 경우에도 휠체어 관광코스와 호텔, 맛집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미안마방정환 기금」

4월 현재 60명 참여

미안마의 전기 없는 농촌(고아원 포함) 아동에게 매월 어린이 잡지를 선물하는 「미안마방정환 기금」 사업에 4월 25일 현재 모두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 3,000원의 기부로 잡지 2권을 선물, 20명의 어린이가 돌아가며 읽게 하는 것으로, 기금참여회원에게는 매월 별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5월의 꽃처럼 만발하시기를

3월 1일~3월 31일 입금분입니다.
3월 인출되지 않은 경우, 4월에 인출되어 2개월분이 다음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한빛재단

1,000원 문숙자 이상근

2,000원 김계순(덕양, 2) 김미란 이평호

3,000원 강희춘 구성유 김종빈

5,000원 강난규(2) 강병철 강하늘/장은혜 강하얀/장은혜 공충식 곽안나 곽환상 구본미 구자균 구재순 김관중 김규환 김길자(종로) 김대현 김동수 김명문 김미영 김민선 김선희(김포) 김수영 김시홍 김영희 김옥열 김유경 김준혁 김태호 김향미 김현숙 김혜숙(목동) 김혜정 김화/임경애 나호연 노수진 도현정 류소연 모영택 문혜원 박범진 박병진 박상준 박용훈 박정민 박정에 박정원 박지현 박현정 배재수 배종철 서영자 설대호 손용태 신성아 신인아 신정훈 신혜경 엄민애 오남숙 오형균 유경진 유경희(당산) 유성애 유해국 이동재 이동하/한귀남 이란희 이미영(분당) 이상희 이소령 이소희 이양훈 이은숙(부평) 이종수 이종태 이춘복 이행남 이호열 임익삼(2) 임정리 장혜경 전봉예 정길순/박지양 정미진 정혜숙 조규영 조명순 주우익 주형욱 채정에 최복주 최수진 최원진 하성남 한진숙 현혜숙 홍혜경

10,000원 (주)상정무역/김진호 강석보 강신근 강인호 강판진 강필구 강희정 구다완 구영현/구인복 구자석 권수영 권술용 권오원/주은혜 권인순 김가은 김경민 김경석 김교일 김기석 김대길 김동진 김동현 김명희 김미애 김민수(인천) 김범수 김병진/윤경자 김보금 김보영 김석미 김성란 김수리 김숙자(독립문) 김영엽 김영지 김옥남 김옥순 김완섭 김용남(송파) 김용남(효창) 김용선 김용운 김윤대 김윤숙 김은숙 김은영(마포) 김은자 김인숙(2) 김인숙(부산) 김재현 김재환 김정욱 김준형 김진명 김진수 김진원(안산) 김철희 김학철 김한영 김향 김현미 김현성 김현숙

김현준 김형목 김형배 김형식 김호경 김화중 나효진 남수경 노현옥 류희수 마지현 맹진자 민경양 민운기 민준홍 박갑수 박경남 박미영 박상준(의정부) 박선영 박수경 박수희 박영주(김천) 박영호 박영희 박인자 박정진 박종근 박종성(안양) 박지숙 박지훈/정선희 박청석 박태진 박혜정 박희정 반종대 방계영 방상호 배경미 배춘숙/김신근 백지웅 서동범 서미란 서영란 서호원 서효선 성경희 손규홍 손훈 송기영 송유자 송정석 신동혁 신문경 신영길 신화용 심우진 심지은 썬실유/유성희 안병훈 안성진 안혜정 양귀애 양은정 연구택/김자희 연우진/변은혜 오병철 오상분 오성곤 오세준 오용석 웅미경 위복실 유빛나/이효희 유승현 윤경자(무악) 윤세나 윤정혜/윤혜진 이건수(2) 이경규(2) 이광진 이금임 이금주 이기혁 이동인 이명옥 이명자 이명진 이명철 이미자 이미지 이민숙 이민정 이보라 이상우 이상일 이상조 이서중 이선구 이선미 이성직 이성희 이세웅 이영근 이영환 이외선 이운상 이은주 이재원 이재임/정윤택 이정근 이정우 이종빈 이주영(2) 이준원/김상순 이종태 이지영(미아) 이지원 이진훈 이쾌희 이한철 이형영 이혜진 이호성 임경민 임난숙 임동상 임옥자 장길성 장치복 장철성 전미희 전민우 전소연 전수익 전현규 전현민 정규성 정명호 정미영 정봉열 정석환 정성호 정성훈 정수연 정수익 정수화 정승은 정연희(안성) 정용수 정인기 정창용 정청옥(2) 정현주 조근제 조기권 조선행 조성숙 조여숙 조재선 조진영 조화기 지형근 진종성 최강석 최경한 최근식/김명순 최병순 최숙자 최순희 최원의 최유미(2) 최유진 최재건 최종문 최준수 최태도 최혜성 최효순 추경선 추정식 추정일 태효원 표창호 하정희 한혜숙 함정혜 함형덕 함형복/최혜자 허옥희 허윤정 허지현 홍관선 홍대식 홍샛별 홍성금

황경희 황백화 황연희 황정일 황중수 황해국

15,000원 김병석 신미영 현영돈

20,000원 강만희 강영철 권순철 권지성 김계영(순창)

김기형 김말순 김수현 김영자(신현동) 김학준 김현경 김혜은 김활 김훈 대능철광(주)/신영식 문장렬 민대홍/이영자 박지웅/유정영 박희민 백봉현 백형남 변상순 서판임 신광재(2) 심경애 안현국/하미경 양숙 연세어학원/이주연

예빛교회마리아선교회 오대영 원충선 유광주 윤주희 이광범 이남숙 이돈형/김희수 이미경 이상권 이상규 이선용(의정부) 이성재 이숙재 이양재 이운구 이은정/서성민 이재호 이정림 이주형 임원기/임수환 장혜실 전순연/박지현 전순열/박지현 조운식 최경희 최두홍 한성진 한영주 흥한덕

25,000원 박용길

30,000원 강재철 권지명 김정수 민유숙 민정범

박상우 박은경 박해옥 서정민 성숙경 오청근 이상길 이희달 임용재 정병배 최종락(2) 최호경 홍성관

35,000원 고명지 박종성

40,000원 이종우(2)

50,000원 김보경 김은영 김의규/구자명 김종배

김현수 김혜선 민택산업/남기백 박문영 박종훈 엄혜령 이윤희 이정숙(대치) 이해민 주은열/엄진용 황인수

60,000원 김은경

70,000원 김홍현/김연정

100,000원 (주)서진안전/서진용 (주)성신전기공업

(주)우석엘리베이터 (주)윌로피아/김윤제 구태언

김윤희 박지연 백명희 어재형/신지영 오애영 이승수

150,000원 윤승모 장우형 채진석

최명숙(이상 재단이사)

200,000원 이영숙

월처어날개달기

5,000원 김동련 조성우

10,000원 고은미 고은순 곽재욱 권은희 김경숙

김계호 김동현(2) 김명석 김서주 김선희(분당)

김소하 김숙자 김순구 김순영 김순이 김안자 김옥열

김원주 김이태 김인숙 김정에 김정자(강동) 김정태

김진모(2) 김철상/이공이 김태운 김현숙(노원)

남향숙 명시연(2) 민혜영 박수경 박순심(12) 박신용

박신자 박옥자 박지형 박혜란 박혜란(6) 백마강

서정숙 서판임 신승엽 안지민/박미애 양노식

오문영 유은수 윤민정 이가영 이광호 이미수/허웅

이상분 이수민 이영분 이윤경 이은영(광명) 이은희

이자영 이장욱 이재숙 이정임(안양) 이진수 이해령

이현경 이해선 이훈호 이희승/김향련 임연하

임현주 임혜진 장궁자 장은솔 장은수 장일순 장진만

장진석 장화순 전도삼(2) 전영희 전해경 정안나

정애리 정영순 정우담/정원균 정재갑 정재호

정재희/주희 정현목 정희정 조인미 조혜숙 주홍진

최광원 최옥희 최유경 최윤지 최혜경 추경은 한정민

한혜영 함순표 허명희 홍경숙 홍상문

20,000원 강용희 강인숙(도곡동) 김덕길 김일생

김효생 박복희 박정경 송경자 장연우 장지분 장혜연

전승완 정경호 정연희(2) 조수현 조승호 최대우

최명숙 최옥모 최정희 한광희

30,000원 강옥순 김옥수 김옥주 김지영 박정현

이태자 이호균 최진경

50,000원 (주)서버존 만리현루디아선교회 박봉희

이승훈 이형재

100,000원 박형상 이재원 이정숙

한빛동지

5,000원 공현우 공아영 권미정 기효순 김계자

김미선 김성호 김용락 김인경 김재열 김지원 노문우

류민정 맹덕섭 문소현 박미현 박은희 박주용 박지숙

박창범 백영늬 서정민 송유진 송효림 신수아 심상우

양윤희 양인희 여희숙 오선화 우지영 육순우 윤미영

이백호 이영심 이윤경 이은영(사당) 이해란 임유림

임재용 임정혜(2) 정상원 정정임 정태경 조상은

진권 최명자 최은미 최일호 한송이 한정옥

10,000원 강권일 강현 곽영현/장형기 곽종원

구성모 권오준 권현정/김성철/김주영 김기래

김면봉 김명조 김명희(일산) 김병준 김상수 김선옥
 김성길 김성빈(2) 김성철 김용미 김우주 김인순
 김정관 김정희 김주영 김홍모 남성현 노신규 노영서
 노인택 류재남 민연수 박정희 박민영 박상현 박소민
 박옥정 박용우 박정신 박정일 백정린 변기정 변아름
 서민향 서지영 서판임 손윤희 심윤섭 안영미 안정애
 양보람 양용준 양정현 양현태 양환석 여일구 염명희
 우기후 유남주 이강전 이경숙(마포) 이권식 이미영
 이소정 이영순 이해순 이해원 이현찬 이해진(마포)
 이희권 인보광/박수빈/박혜빈 임경철 임진희
 장유나 장철만 장현주 전승열 정다미/김재훈
 정영석 정주희 정진하 정향남 정희정 조원영 조인규
 조재경 채순옥 채영심 최현정 한정이 홍윤남 홍윤재
 황진숙

20,000원 김경란 김상욱(마포) 김임순 김정효 김희량
 류영미 백승열/박정옥 이선우/김연희 이정림(무악)
 이지영(강서) 정현주(마포) 조성윤 최준우 하정운(2)
 한재형

22,000원 박승환

30,000원 곽형우 김계엽 김석훈 김지희 박영운
 박하운 성낙일 윤일심 이웅기(2) 이재용 이태균
 정은영(마포) 최갑석

50,000원 김간란 양영애 윤미선 이정민 조항미
 최은방 홍영매

70,000원 류연기

100,000원 열림교회

509,316원 서강어린이집

한빛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5,000원 박현민

10,000원 구인회 김규백 김선식 김왕수 김종옥

김진아 남기명 박병준 신재철 안○○ 이광석
 이수희 이종현 이준구(원주) 임건태 전정락
 전현기 정형선 최봉계 홍원표

20,000원 강완정 강진구 김민혁 박성용

박영숙 오경원 이강우

30,000원 권재현 김경준 김기수 김선광

손병산 이탄희 이태희 정은영

50,000원 김혜원 김혜인 유경환

70,000원 최수진

100,000원 강은모 이종구

이준구 차성안 황수혜



주간보호센터

5,000원 박정원 조승현

10,000원 김대한 김미영/허규민 김정운 박종미

박채련 서판임 오선주 윤준호 이태칠 정미숙 차경옥

15,000원 김민정

20,000원 김중범 엄해경 이경화 표영미

30,000원 신두철 안소영 이원재(2)

50,000원 권홍신

100,000원 김현진

한양대학교 한빛후원회 210,000원

김대경 김성수 김용신 김효준 서해명 석동우
 성기훈 신경훈 신동수 오혜근 원호식 이학준
 전형필 정영대 정일엽 정희준 주재범 차민철
 채영규 최지웅 한정순 현정호 홍주유 황승용

재정보고

(2017.03.01~03.31)

수익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정기후원금	11,047,000	시설운영비(한빛동지)	3,505,000
특별후원금	2,030,000	휠체어 기증 사업비	4,931,770
시설후원금	6,050,000	시설운영비(주간보호)	500,000
이사후원금	600,000	미안마 방정환 사업비	1,160,000
서울시 사업비 보조 등	19,144,649	급여(4명)	9,363,040
		식당운영비	140,000
		건물관리비	831,330
		수수료, 수용비	770,569
		차량비	91,954
		행사비	1,636,770
		사무용품비	443,680
		외부기관사업비	15,154,743
총계	38,871,649	총계	38,528,856
		잔액	342,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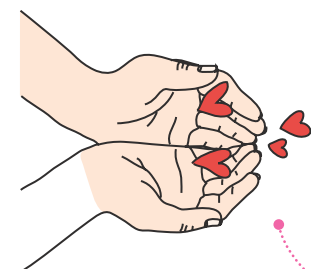
통 권 244호
 발 행 일 2017년 5월 1일
 발 행 인 최명숙
 주 소 (04319)서울 용산구
 효창원로69길 42-3
 전 화 02) 393-0661(대)
 팩 스 02) 712-6093
 홈페이지 www.hanbeot.org

한빛재단 임원

재단이사 최명숙(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백 혁 윤승모 장우형 채진석
 법인감사 강만희 김 훈
 운영이사회 백진양(회장)
 강제숙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김혜명 박미성 엄해경 이경화
 이형재 최정의팔 최현규

부서별 전화번호

사 무 국 02) 393-0661
 한빛동지 02) 336-3100
 주간보호 02) 713-5050
 한국휠체어기증본부 02) 713-1005
 한빛투어 02) 702-1515



미국 교민 후원회원들이 보내주는 향기 이곳 한국에 도착했어요. <3월 계 \$575>

달러

김윤원 \$100 스텔라 \$100
 조대웅 \$30 김애주 \$60
 강순옥 \$60
 합 \$350

킬린

최정임 \$20 임재린 \$20 조마리나 \$20 성인숙 \$25
 이영란 \$20 장지수 \$20 김지선 \$20 김진영 \$20
 이사벨라 \$20 이정숙 \$20 김연희 \$20
 합 \$225

유모차와 휠체어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300만원에 달하는 컨테이너 선적비로 힘겹습니다.

휠체어기증본부(763601-04-095562/국민은행) 계좌로

‘유모차 선적비-이름’으로 기부해주시면 컨테이너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엄마와 꼬마

안소니·드·멜로

엄마 네가 부엌에서 그 과자를 훔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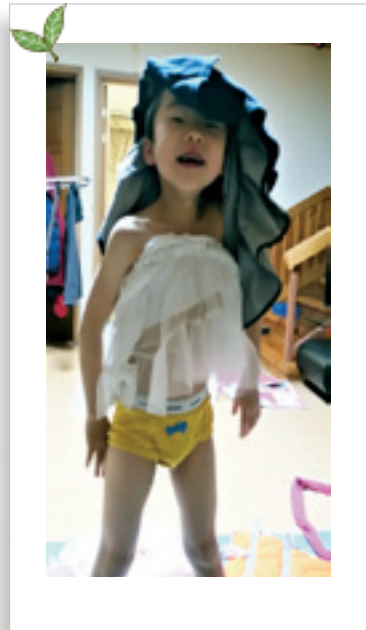
꼬마 예.

엄마 그분께서 내내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도?

꼬마 예.

엄마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꼬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두 개 꺼내라.'



**미안마
방정환
기금**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면.
미안마 전기 없는 농촌 어린이에게
매월 재미있는 어린이 잡지 두 권을 선물하여
스무 명이 돌려 읽게 합니다.

문의 : 한벗재단 02)393-0661